

온라인 쇼핑에 빠진 중년 남성...유통가 '큰 손'으로 부상

1인당 구매액·건수 여성 앞질러
40~50대 아이돌굿즈 구매 늘어
디지털 기기·스포츠·아웃웨어
구찌·발렌시아 등 명품소비 증가

경제력을 갖춘 중년 남성이 온라인 쇼핑의 주고객으로 떠올랐다. 더 많이, 더 자주 온라인 쇼핑물에 접속해 최근에는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이 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신을 위한 투자와 소비를 아끼지 않는 '포미(FOR ME)'트렌드와 외모가 주요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생겨난 '그루밍족'의 영향으로 20대 남성은 물론, 경제력을 갖춘 30~40대 남성 소비자가 패션과 뷰티, 디지털 기기, 스포츠웨어, 명품까지 관심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40대 남성이 최다 구매

글로벌 온라인 캐시백 기업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베이코리아 웹사이트를 경유해 물건을 구매한 남성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남성의 온라인 쇼핑 주문 건수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 78% 증가하며 큰 폭으로



지난달 롯데백화점이 잠실 월드컵타워 에비뉴엘 지하 행사장에서 워너원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 다양한 굿즈를 한자리에 선보였다. /롯데백화점

늘었다. 여성 구매 고객 수 증가율은 13%로 남성 고객 수 증가율 절반에 그쳤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온라인 쇼핑물에서의 1인당 평균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2만8000원으로, 9만7000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 반면 여성 고객의 평균 구매액은 10만1000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 증가한 11만4000원을 기록했다. 남성의 1인당 평균 주문 건수도 14건으로 여성(11건)보다 더 자주 쇼핑한 것으로 나타났다.

◆럭셔리 브랜드에 관심 ↑

럭셔리 브랜드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자들이 즐겨 찾는 쇼핑물은 이베이, 미스터포터, 알리익스프레스, 하이마트, 센스(SENSE)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쇼핑물은 남성 구매자가 전체 구매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 구매자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쇼핑물은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물 뉴에그, 남성 스타일 전문 온라인 쇼핑물 미스터포터를 비롯해 라쿤텐, 이스트베이, 알리익스프레스가 포함됐다.

〈G마켓 스타상품 세대별 판매 신장률〉

구분	남성	여성	총합
10대	478%	545%	531
20대	119%	467%	334%
30대	88%	322%	209%
40대	506%	376%	415%
50대이상	362%	311%	328%
전체	192%	312%	264%

올 1~7월 기준. 3년 전인 2015년 동기 대비. /자료=이베이코리아

남성 고객 매출이 높은 위 5개 쇼핑물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23만6000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는 가격대가 높은 디지털 기기, 스포츠 용품 및 아웃웨어, 명품 구매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남성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명품 브랜드 편집숍이나 멀티숍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도 커졌다. 올 상반기 해외 직구 쇼핑물에서 남성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산 아이템은 운동화, 발렌시아가의 스피드러너를 비롯해 발렌시아가 트리플S, 구찌의 라이튼 스니커즈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4050 남성은 굿즈에...직딩은 취미에

반면 40~50대 남성의 경우, 온라인 쇼핑물에서 아이돌 굿즈 구매가 상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굿즈(goods)는 인기 연예인이나 게임, 영화 등과 관련한 상품을 의미한다. 아이돌의 사진이나 로고,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나 머그잔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의 지갑이 꽂꽂했지만 아이돌 굿즈시장은 점차 확대되면서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내 아이돌 굿즈시장 규모는 지난해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G마켓에 따르면, 스타방송상품 세대별 판매 신장률(올 1월~7월 기준, 3년 전인 2015년 동기 대비)은 40대 남성이 506%, 50대 이상이 362%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여성이 545% 신장한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다.

50대 이상 남성 판매 신장률 베스트 품목은 여행/항공권(350%), 가공식품(181%), 가구/DIY(165%), 가전(146%), 캠핑/낚시(111%), 골프(108%), 건강식품(104%), 신선식품(101%), 화장품(52%), 의류(31%) 순이다.

일상의 활력과 만족을 위해 각종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쇼핑을 통한 취미용품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화 아쿠아플라넷63, 광복절 기념 수중 만세 퍼포먼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화 아쿠아플라넷63에서 아쿠아리스트가 광복절을 기념해 수중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쿠아플라넷63은 오는 15일에 본인 얼굴을 인정한 국기게양 사진을 매표소에서 보여 주면 63종합권 40% 할인을 해준다. /연합뉴스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16일 코엑스 개막

한국유기농업협회 주최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주최하는 제17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가 16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유기농식품 시장정보 제공과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이번 박람회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자연 그대로의 삶, 건강한 삶을 위한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150여개 기업과 기관, 단체가 참여한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 외에도 전남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한다. 싱가포르와 스페인, 파라과이 등 7개국 7개 업체도 전시에 나선다.

친환경농업인이 유기농식품 등을 전시·판매하고, 해외 구매자 수출상담회와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유기농 관련 컨퍼런스 등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육류를 대체할 콩고기, 식물성 마요네즈 등의 채식(Vegan)식품과 국산 쌀로 만든 쌀국수, 쌀빵 등의 글루텐·알러지 프리(Gluten·Allergy Free) 식품도 체험할 수 있다.

수출상담실은 16일부터 2일간 전시관 내에 설치된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해외에서 방문한 구매기업(12개국 38개 기업)과 1대1 매칭 수출상담을 할 수 있다. 해외 구매기업은 중국과 베트남 각 6곳, 말레이시아와 대만 각 5곳, 싱가포르와 태국 각 3곳, 미국과 홍콩, 인도, 러시아 각 2곳, 일본과 몽골 각 1곳이다. /이범종 기자 joker@

'계열사·친족신고 누락' 조양호 회장 고발

공정위 처남가족 포함 62명 누락 한진그룹 "고의성 없는 이해 부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총수)인 조 회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혐의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대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사·청원냉장 등으로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태일통상 담요와 슬리퍼를, 태일캐터링은 음식재료를 기내용으로 대한항공·진에어에 납품하고 있다. 대한항공 납품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세계혼재항공사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으며,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진에어에 납품하는 음식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진영 기자 son@

료의 전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를 감안해 2014년 이후부터의 행위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빠진 4개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과 각종 공시 의무에서도 제외됐다. 아울러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 행세를 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 관계 등록부 및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이 기소된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행정 착오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고의성은 전혀 없으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에 의해 독립 경영되고 있어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7월 소시지·콜라 오르고 햄·두부 내렸다

지난달 스프·소시지·콜라 등의 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다소비가공식품 30개 품목의 7월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3일 밝혔다.

다소비가공식품 30개 중 전월 대비 가

격이 상승한 품목은 스프(6.3%)·소시지(6.0%)·콜라(4.6%) 등 13개였고, 하락한 품목은 햄(-3.0%)·커피믹스(-2.5%)·두부(-1.6%) 등 15개였다. 생수·치즈 등 2개 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특히 스프와 소시지 가격은 2018년 6월 까지 하락하다가 7월에 상승한 반면, 냉

동만두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다가 7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2.4%~10.8%의 등락률을 보였고, 어묵·즉석밥·설탕·콜라 등 20개 품목이 상승했다. 주로 조미료류, 차·음료·주류 등이 상승했다. 조미료류는 설탕(8.6%)·간장(3.9%)·케첩(1.6%), 차·음료·주류는 콜라(8.2%)·맥주(1.7%)·생수(1.7%) 등이 상승했다.

/박민용 기자